

일본·중국 산업간 상호 의존 관계

-최초로 발표된 「2007년 일·중 국제산업연관표」의 분석-

경제산업성에서 일본과 중국의 산업간 연관성을 나타내는 「2007년 일·중 국제산업연관표」를 최초로 발표.

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부가가치유발액 중 17%를 중국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본은 무역뿐만 아니라 對中투자,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이전함으로써 중국내 판매와 수출, 중간재 공급을 통해서 중국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.

□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유발액 중 17%를 중국에 의존

- 해외수요에 의해 일본이 창출한 부가가치(GDP)중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17%로 나타났으며, 중국의 수요 100억달러당 일본으로부터의 생산유발액이 6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

- 2007년 일본의 부가가치(전체 약 4.2조달러)중 해외수요부분 6290억달러 중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은 1068억달러

- 개별 품목의 예를 들면, 일본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247억달러 중 85억달러가 전자계산기 부문, 60억달러가 민생용 전자기기 부문에 판매되고 있음

□ 일본·중국간 상호의존관계 심화

-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중국의 생산액은 중국의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된 일본의 생산액 보다 1.2배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
 - 일본은 국내 민간소비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, 중국은 국내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, 일본보다 해외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
- 일본과 중국의 자국 최종수요에 의한 전체 수입유발액에서 점하는 상대국의 수입유발액 비율은 일본이 중국보다 약 1.4배가량 높음

□ 생산유발은 일본보다 중국이 강하나, 부가가치유발은 일본이 강함

- 일본의 최종수요에 1단위에 의해 일본(1.64)과 중국(0.07)의 생산은 1.71배 유발되는데 비하여, 중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일본(2.38)과 중국(0.06)의 생산은 2.44배 유발
- 일본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일본과 중국의 부가가치는 0.86배 유발되는데 비하여, 중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 일본과 중국의 부가가치는 0.79배 유발

□ 일본 기업은 對중국투자, 중국내 생산 등에 기여

- 일본 기업은 최종재의 중국내 판매 및 해외수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, 중국내 非일본계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공급을 통해서도 중국에 기여하고 있음
- 일본의 국내생산 축소, 해외생산 확대 과정에서 일본에서의 최종재

1단위 감소와 일본계 기업의 최종재 1단위 증가에 의한 생산이전 효과는 아래와 같음

- 일본의 부가가치 감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, 생산이전에 의한 중국에서의 부가가치 형성은 일본보다 약간 적음

□ 중국내 일본계 기업의 최종재 생산 내역

- 자동차의 경우 현지판매비율이 100%로 가장 높고, 반도체 포함한 전자부품의 경우는 제3국에 대한 수출비율이 100%로 가장 높음
- 일본으로 역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는 정밀기계, 전자계산기 등으로 대일수출 비중이 60%~80%로 높은 편임
- 특히, 자동차의 경우 중국으로 생산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 면에서, 일본으로부터 수입유발액은 거의 없는 대신,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과 非일본계 기업의 부가가치유발이 큰 편임

□ 시사점

-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간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특히, 투자에서는 일·중간 상호직접투자(cross investment)보다는 거의 일방적인 일본의 對중국투자가 특징인 가운데, 일본기업의 對중국투자와 중국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

- 일본기업의 중국내 생산으로, 중국은 부가가치유발에서 수출확대, 중간재 공급 등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과는 달리, 일본은 중·일간 무역구조 변화, 국내생산 감소,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
- 특히, 해외생산 비중이 높은 글로벌경제하에서 해외생산과 국내생산의 상호의존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내투입구조, 생산기술에 관한 정보, 중간재의 조달체계에 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,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「해외사업활동기본조사」가 큰 도움이 되고 있음
-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, 일본은 중국에 희토류의 수출축진을 요구할 때마다 산업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, 통상교섭 근거자료로 2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할 가치가 있음
- 경제산업성은 미국, 영국, 독일 등의 국가와 국제산업연관표를 독자적으로 작성, 발표해 왔음. 그러나 일·중 국제산업연관표는 일본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작성한 것임

<참고자료>

『2007년 일·중 국제산업연관표』, 경제산업성, 3월3일